

열정, 신념, 투지의 일생 송 호 성(宋浩星)

대학교수로서 병원장으로서 또는 단체장으로서 그는 항상 남들보다 몇 걸음 앞서갔다. 정연한 이론을 열변으로 토해내는 그의 모습은 춘추전국시대의 논객을 연상케 했으며 강직한 성격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언제나 넓고 따뜻했다.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학생집단검진 개척

결출한 결핵학자며 병원행정가인 송호성은 우리나라 결핵계와 의료계에 바람을 몰고 다닌 풍운아였으며 위풍당당한 체구에 못지않게 죽는 날까지 청년같은 열정과 신념, 그리고 투지를 불태운 정의파 장부였다.

그는 1913년 10월 28일 황해도 황주(黃州)에서 부친 학렴(學廉)과 자친 한흥선(韓興善)의 3남으로 출생했다. 황주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지만 일본인 학생들과의 민족적 감정 야기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자 그 때 마침 식산은행 고창지점에 근무중이던 둘째 형의 노력으로 간신히 고창고등보통학교에 편입했다.

그러나 형이 조치원지점으로 전근을 가게 되자 형을 따라 청주고등보통학교로 전학했는데 그는 매일 조치원에서 기차통학을 했다.

청주고보 졸업 후 경성제국대학 입학 시험에서 첫 고배를 마신 송호성은 1년간

재수하여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재학중 축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결핵으로 객혈을 하고 투병했던 체험은 그가 결핵을 전공하게 된 동기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1940년 졸업 후 당시 결핵으로 유명하던 모교부속병원 나리다(成田)내과학교실에 조수로 입국했다. 그 후 태평양전쟁이 가열되자 그는 이미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고 오직 공부에만 열중하면서 1944년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투베르클린 반응검사를 실시했으며, 경성제대의 조중삼(趙重參)과 함께 처음으로 서울시내 중등학생 1만8천4백89명에 대한 엑스선집단검진을 실시하여 7.35%의 유소견자와 1.63%의 유병률을 밝혀 낸 것은 그의 큰 업적이다.

일제가 패망하고 1947년 국내안으로 경의전과 경성대학이 합쳐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출범할 때 내과학교실 조교수로 승진했으며 6.25전쟁중에는 1.4 후퇴 때 부산에서 한 때 해군문관으로 봉

사하면서 국립마산결핵요양원에
도 지원나가곤 했다. 필자가 처음
그를 만난 것은 그곳에서였다.

일제 말 이미 결핵집단검진을 개
척하고 유병률조사를 실시했던 송
호성은 6.25전쟁으로 결핵이 급증
하자 앞을 내다보고 국가결핵관리
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이재규,
한응수 등과 결핵협회 창립에 주
동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1953년 11월 6일
창립 이후 줄곧 이사로 활약했다.

결핵세균학에 몰두

1955년 부교수로 승진하자 그 해 5월
부터 57년 9월까지 ICA교환교수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결핵세균학, 특히 비정형항산균(非定型
抗酸菌)에 대한 연구에 정진했다. 그는
세균학의 권위 기용숙(奇龍肅)교수와 각
별히 친밀하게 지냈다.

1958년 4월 인천적십자요양원장을 겸
직하면서 그의 독특한 개성을 한껏 요양
원 운영에 발휘하여 요양원 면모를 일신
해 나갔다. 정원의 지형을 다듬고 잔디를
깔고 꽃과 나무를 심어 구라파 어느 대저
택의 정원처럼 운치 있고 아름다운 환경
을 만들었는데, 이따금 영화나 TV의 촬영
무대가 되기도 했다. 송림 넘어 펼쳐진 연
전이 있고 그 앞을 수인선(水仁線)의 협궤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달리는 목가적인
풍경은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이었다.



송호성은 환자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
급하기 위해 맛과 메뉴가 거의 호텔급인
식사를 제공했고 환자치료를 위해 1960
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이소니아
지드 대사형(代謝型)을 밝히고 계속 폐결
핵 화학요법 및 약제내성검사에 대한 연
구와 발표를 했다.

최신 화학요법과 검사기법을 시행하던
서 영양 대기 안정의 고전적 사나토름 요
법을 접목시킨 고품위의 독특한 치료 모
델이 만들어졌다.

송호성은 이곳에서 결핵집단회도 열고
결핵학회도 개최하여 전국의 결핵전문가
들이 모여 토론하고 친교하는 것을 좋아
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
았다.

그는 당시 인천 부평에 주둔해 있던 미
국 121후송병원 스태프들과 사귀면서 요양
원의 폐결제 적응증환자를 그 후송병원
으로 보내서 수술 후 다시 데려오곤 했는
데 그런 협조체제가 한참동안 계속되어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관계 미군

군의관들을 가끔 초대하여 사은의 가든 파티를 베풀기도 했는데, 그것은 양국간의 의학교류뿐 아니라 우호증진에도 기여했다. 그리고 넓은 요양원 경내 농지에 각종 야채를 재배하여 신선하고 청정한 야채를 늘 자급자족했다.

탁월한 병원행정 능력

송호성은 1959년 결핵균 배양법의 연구로 서울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 해 교수로 승진했다. 1961년부터는 2년간 대한결핵협회 제 9대 회장으로서는 협회 분위기 쇄신과 국가결핵관리 체계 확립 및 결핵병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62년 겸직했던 서울대의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서울적십자병원장에 취임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원 행정능력을 맘껏 발휘했다. 먼저 각과의 과장을 대학교수급 중진으로 영입하고 구로위주의 낙후된 병원시스템을 혁신하여 단시일 내에 대학병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결핵퇴치사업과 탁월한 병원경영의 공로로 1964년 정부는 대한민국 공익포상을 그에게 수여했다.

병원장으로서 그가 보인 뛰어난 행정능력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되었으며 1972년부터 77년까지 대한병원협회장에 선임되어 미약했던 협회 운영을 쇄신하고 확충하여 병원협회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정성과 정열을 쏟았다.

병원경영 개선과 교육병원의 수준향상

등 괄목할 업적을 남겼으며 협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대정부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도 앞장섰다.

1973년 적십자병원장을 정년 퇴직한 후 경희대부속병원장, 을지병원장을 거쳐 1976년 한강성심병원장과 의무원장을 역임했는데 1980년 성심중앙유지재단 임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보건연구회의 창립멤버로서 우리나라 보건현황과 장래에 대한 세미나 개최와 보건백서 간행에 힘쓰고 도시영세지역의 불우환자 구료와 지원사업을 펼치는 데 노년의 정열을 쏟았다. 보건백서는 우리나라 보건문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평가, 장래의 전개 방향 설정 등 중량감 있는 간행물이었다.

송호성은 학회에 나가면 자기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은사나 대가에게도 정면 도전을 사양치 않았으며 애걸하는 낙제생에게엔 추호의 용서가 없었고 버릇나쁜 환자에게는 질타를 가하며 의사의 지시에 순종케 했다.

위낙 성격이 강직하고 진실하여 불의를 보고는 못 참는 정의감과 반골기질로 세상사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는 많은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일 언행으로 평양고보를 퇴학당한 것도 그 예의 하나다.

늘 몇 발 앞서 갔다

대학교수로서, 병원장으로서 또는 단체장으로서는 그는 매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항상 남들보다 몇 걸



1960년 인천직식자요양원 정원에서 개최된 결핵집담회에 참석한 결핵협회 임원들 앞의 사람이 鄭求忠 제4대 결핵회장, 선 사람 중 좌로부터 玄圭煥 제3대 결협 서울지부장, 宋浩星 인천직식자요양원장, 李在珪 결협이사

음 앞서있었다. 얼굴을 제끼고 눈썹을 상하로 움직이며 정연한 이론을 열변으로 토해내는 그의 모습은 춘추전국시대의 논객을 연상케 하는 일면이 있었다.

아마 그를 의사당으로 보냈다면 결핵과 의료계 대변자로서 분명 큰 몫을 했을 것이다.

성격이 그토록 강직하지만 그의 가슴은 항상 넓고 따뜻했다. 정이 많아 그를 깊이 알수록 넉넉한 인간미에 매료된다. 텅텅한 외모와는 달리 심미적 안목도 높아 그의 손이 닿는 곳은 세련되고 아름다워진다.

그가 인천직식자요양원 원장으로 있을 때 필자는 이따금 그곳을 방문했는데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곳 전원풍경은 서울의 풍진을 떠나 좋은 안식처가 되었으며 그와의 그칠 줄 모르는 토론과 대화는 결핵문제에서

정치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으로 언제나 흥미진진했다. 그는 특히 젊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것은 그의 매력이기도 했다. 홍영표(洪永杓)회장이 그 때 그 요양원 의무국장으로 있었는데 말 수가 적고 늘 연구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것이 생각난다.

때로는 셋이서 송도 쪽으로 나가 조개탕에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했는데, 지금처럼 번잡하지 않아서 좋았다. 바다에서 막 캐올린 조개의 신선한 국물을 조개껍질로 떠먹은 그맛은 지금도 혀 끝에 맴돈다.

송호성은 한림대의료원장으로 재임중 1982년 3월 2일 새벽 한강성심병원에서 심근경색증으로 69세의 생을 마감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윤학순(尹鶴順)여사와 장남 건영(建英), 차남 준영(駿英)과 금자(錦子)가 있다. 현재 부인과 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